

## □ 문제 2

### 1. 출제 의도

대학생이라면 우리말의 역사와 가치를 정확히 알고 세계화, 국제화의 새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. 그런데 우리말과 한글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우리 것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. 더구나 그러한 자문화중심주의를 고집하여 국가 간의 무제한적 경쟁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몬다면 한국의 미래는 자못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.

### 2. 문제 해설

#### 1)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

- 제시문 (가)는 한글과 한국어를 구별하여, 언어로서의 한국어 자체를 두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, 즉 모든 개별 언어는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대등한 역할을 한다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. 한국어 사용자들이 흔히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수주의적 편향을 경계하고 있다.
- 제시문 (나)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지닌 우수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. 자체의 논리성이라는 내면적 가치 이외에 컴퓨터나 통역 환경에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외면적/실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한글은 매우 뛰어난 문자 체계라는 것이다. 문제는 그러한 한글이 한국의 국가 자원으로써 국가 간 경쟁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도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. 세계인의 손쉬운 소통이나 세계문화의 고른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글의 가능성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파악하는 데서 넓은 국가주의/민족주의적 한계를 읽을 수 있다.

#### 2) 문제의 의미

##### 【문제 2-1】

이 문제는 제시문을 일단 두 부류로 나눔으로써 학생들의 읽기 부담을 줄이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독해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. 제시문 (가)에서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추출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(나)를 읽음으로써 차별적인 읽기 내용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.

(가)의 ‘개별 언어는 모두 그 나름대로 의사소통 매개체로 대등한 역할을 한다.’와 같은 진술에서 “다원주의”나 “문화상대주의”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.

(나)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지닌 국가적 쓰임새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“민족주의” 혹은 “자문화중심주의”적 색채를 뚜렷이 읽어낼 수 있다.

**【문제 2-2】**

→ **시대 배경:** 지구촌이나 세계화, 국제화라는 용어가 회자된 지 이미 오래다. 교역이나 유통, 문화 교류, 노동자 유입이나 결혼 이민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제는 전통적 순혈주의나 고립주의를 고집하기 어렵게 되었다.

**(가)의 태도:** “다원주의” 나 “문화상대주의”란 내 생각이나 우리 문화가 중요한 꼭 그만큼 다른 이들의 사고나 문화도 중요하다는 상호주의나 호혜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으려는 태도이다. 인류의 화합이나 종들 간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.

**(나)의 태도의 문제점:** 신토불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,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언제나 우리 것만이 선이라는 고립주의나 절대주의적 태도로 기울 수 있다.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사상으로 피흘려왔던 인류사의 지난날이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.

**우리 문화를 대하는 세계화 시대의 바른 태도:** 한글이나 우수한 전통 공예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무기로 삼겠다는 발상은 이미 낡았다. 민족들 간의 세계적 통합에 한글과 같은 우리 자산이 활용될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.

**3. 채점 기준**

하위 문항	채점 기준	배점
2-1	<p><b>이해력(10)</b>                      A(10): 근거와 함께 (가)를 다원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결하고 역시 근거와 함께 (나)를 민족주의/국가주의,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B(7): 근거 없이 구분만 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C(4): 근거 없이 (가)를 다원주의 혹은 문화상대주의와 연결하거나 근거 없이 (나)를 민족주의/국가주의,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D(1): 근거 없이 (가)를 다원주의 혹은 (문화)상대주의와 연결하거나 역시 근거 없이 (나)를 민족주의/국가주의, 자민족중심주의 등으로 설명한 경우</p> <p><b>표현력(10)</b>                      A(10):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B(7):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C(4): 비문이 하나 있는 경우</p>	20
2-2	<p><b>논증력(15)</b>                      A(15): 근거 상황 + 민족주의의 한계 +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B(12): 민족주의의 한계 +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C(9):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 D(6): 민족주의의 한계                      E(3): 근거 상황</p> <p><b>표현력(15)</b>                      A(15):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+ 창의성(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종들 간의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진술과 같은 납득할 만한 생각)                      B(12): 비문이 없고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C(9): 비문은 없으나 단락 구성(문장 연결)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</p>	30

D(6): 비문은 하나 있으나 단락 구성이 자연스러운 경우 E(3): 비문이 하나 있고 단락 구성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	
--	--

#### 4. 예시 답안

##### 【문제 2-1】

“개별 언어는 모두 ~대등한 역할을 한다.”와 같은 진술로 볼 때, (가)는 다원주의나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에 비해 (나)는 한국어로 세계의 모든 문화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가 간의 정보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한글이 유용한 도구임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, 민족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 구별된다.

##### 【문제 2-2】

세계화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. 그에 따라, 우리 각각이 모두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문화상대주의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. 지난날의 민족주의 혹은 자문화중심주의는 우리 것만이 선이라는 배타주의적 태도로 기울기 쉬웠다. 국가 간의 경쟁으로 피흘려왔던 인류사가 그 좋은 보기이다. 그 점에서 한글과 같은 우리 고유 자산을 국가 경쟁력의 무기로 삼겠다는 (나)의 발상은 이미 낡은 사고방식이다.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.